

# 악취 저감 정주여건 개선

### 익산시, '악취악취24' 등 통해 접수 결과 2019년 대비 하절기 민원 감소

익산시는 악취 저감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는 '악취악취24', 악취상황실 유선 등을 통해 접수된 하절기 민원 통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19년 8월 1387건, 2020년 8월 1611건, 2021년 8월 850여건을 기록했다.

악취 발생이 빈번한 7~8월 기준으로는 2019년 2379건, 2020년 1970건, 2021년 1700여건으로 감소해 2019년 대비 71%, 2020년 대비 86%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7~8월 심야시간대 악취 민원 발생일도 2020년 14일에서 2021년 6일에 그쳤다.

시는 여름철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심야시간대에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및 환경기초시설 등 악취 배출사업장을 점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183개소에서 300여건의 악취 시료를 채취했고 악취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확인을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4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도심권 악취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분뇨 및 가축분뇨 냄새를 줄이기 위해 관련 부서 합동 점검에도 나섰다.

폭염 피해 예방 권고에 따라 축사 이온화 분무와 송풍팬을 활용한 실내 온도 낮추기,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을 권고해 왔다.

아울러 도심권의 악취 발생 피해를 우려해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

지 오산·춘포면, 신흥동 등 도심 인근 축사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환경관리과·축산과 합동단속으로 40여 개소의 축사를 불시에 점검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농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매입 목표인 62농가 중 57농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의 생산 활동이 있는 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사업주의 환경친화적 인식과 민·관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매년 체감악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군산시는 자매도시 김천시를 방문해 군산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 자매결연 맺고 매년 '교류행사'

### 군산시, 자매도시 김천 방문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군산시는 자매도시 김천시를 방문해 군산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주문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할쌀보리, 장아찌, 한과, 젓갈 박대, 간장게장 등 23개 업체 40개 품목 2604개/3,889,190,000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특히, 군산 특산물 환할쌀보리는 인지도가 높은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5kg짜리 400개 이상 판매 성과를 나타냈다.

군산의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교류행사에 김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매자에게 홍보용쌀(신동진)과 보

리쌀 2600개를 증정했다.

김진주 떡거리정책과장은 "군산시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교류 행사에 김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폭넓은 교류행사를 추진해 군산 농수산업인 및 가공업체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과 김천은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양 도시간 농수특산물 교류행사를 올해로 13회째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에는 김천에서 열린 머스켓과 자두, 복숭아 등을 판매, 홍보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한 바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앞장서겠다"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LH 규명 조사 약속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에 대한 LH의 원인규명 조사 약속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8일 LH 전북 지역본부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반침하 문제의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LH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시행자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6개 기업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LH에 지반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추구해 왔다.

이들 업체는 지반 침하로 건물 기울어짐, 바닥·천장 균열, 가스 시설·장비 안전사고 위험, 누수·누전, 습기 발생 및 벌레 유입 등으로 인한 기업 운영 차질과 업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에 LH 측은 토지 현황 등은 부지를 매수한 기업이 사전에 확인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 시장은 이에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장과 함께 LH 전북 지역본부장을 만나 기업들이 정상

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LH의 원인 규명 조사 착수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LH는 시와 피해대책위에 이에 따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을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

## 강임준 군산시장, 추석명절 장보기 행사로 상인 격려

군산시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추석명절을 맞아 내운동 주공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통구조 및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생업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방역수칙을 준수해 강 시장과 송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군산사랑상

품권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광명 주공시장상인회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훈훈한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오면 좋겠다"면서 "시민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민들의 상생인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시국에

있지만,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만큼은 관내 소상공인들과 시민 모두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라며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아울러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을 피해 오는 15일까지 군산시·유관기관·기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체력인증센터, 온라인체력증진교실 회원 모집

군산시 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4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회원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4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은 기존 참여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실시하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4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접수 받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체력100' 회원가입 후 유선(454-8761~3) 또는 체력인증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4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은 오는 27일 ~ 11월 4일까지 8주간 구글미트(Google Meet)이름을 활용해 오전반·오후반 2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오전반(화·목 10:00 ~ 11:00)은 체력증진 및

다이어트를 위한 트레이닝, ▲오후반(월·수 15:00 ~ 16:00)은 소도구를 이용한 체지방감소 및 근력증가 트레이닝을 주제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고 체력인증센터에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력인증센터는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측정과 개별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평일 9시 ~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 ~ 13시)운영하며, 화·목요일은 주간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20시까지 야간 운영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

군산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독려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공소·읍면동 부서별 물품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군산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 원팀장으로부터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공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과 확대방안에 대한 교육시간을 가졌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군산에 예비사회적기업 16개소, 사회적기업 18개소, 마을기업 5개소가 있으며, 이들 기업은 지역내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기업홍보와 판로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 군산시 대학가 주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군산시는 대학교 2학기 개강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군산대학교와 합동으로 방역캠페인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타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교 개학 시기와 맞물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시했다.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군산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현수막 홍보를 대학가 주변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 있어 방역에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방심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